

한국인의 로마자 인명 표기의 통일성과 일관성: 《영어영문학》게재자를 중심으로*

김혜숙
(건양대학교)

Kim, Hye-Sook. 2001. **Unity and Consistency in the Romanization of Korean Personal Name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3, 417-435. The aim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it examines the romanization of personal names of the teachers who teach English at a university and compares it with the romanization of the general public to see whether there is a unity between the two groups. Second, it explores whether the teachers romanize their personal names consistently and, if they don't, how differently they romanize their nam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the romanized names of the 313 authors who published their articles in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from 1991 to 2000. The study shows that the English teachers and the general public differ in the order of the given name and surname as well as formatting. Most of the English teachers prefer to put their surnames last while the majority of the general public put their surnames first. The English teachers opt Gn-Gn and Gngn whereas the general public select Gn Gn for their given names. However, both groups, in general, spell the surname with the same Roman alphabets. The study also shows that the English teachers frequently reverse the order of the given name and surname, and change the formatting of their given names. They, however, spell their names rather consistently. This result indicates that Koreans may be lenient with the order of the given name and surname and formatting of their given names. However, they will unlikely change the spelling of their names even when a new policy on personal names is promulgated.

1. 들어가는 글

1.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인명 표기는 동일한 표기로 일관성 있게 적을 때에만 인명 표기로서의 제 구실을 하게 된다. 한 사람의 이름을 서로 다른 표기—예

*이 글이 보다 나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지적 해주신 두 분의 익명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를 들어, Susan과 Suzan—로 일관성 없이 적는다면, 이 두 표기는 동일하게 발음되더라도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인식되지 않고 각기 다른 두 사람의 이름으로 인식될 것이다.

우리 인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국사람들은 한 개인의 인명이 서로 다른 로마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로마자 인명 표기조차도 국내외 영문 일간지 및 시사지 등에 일관성 없이 표기되고 있다(김혜숙 1998, 2000). 이는 중국 대통령이나 일본 수상의 인명이 동일한 로마자 표기로 일관성 있게 표기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우리 인명 체계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Hyun Chol Kim, Hyonchol Kim, Kim Hyun-Chul, 또는 Kim Hyon-chul 등과 같이 여러 다른 표기로 적혀 있어도, 그 표기들이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명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인명 표기는 다른 사람을 가리킬 뿐이다. 이름과 성의 순서, 붙임표(-)의 유무, 대·소문자, 한 두 개의 철자 등 사소해 보이는 차이일지라도, 이들은 각기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또는 문화부)에 의해 개정·공시된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포함한 네 차례의 정부 공식 표기법¹⁾과 40종²⁾이나 되는 국내외인 및 학회 등이 만든 비공식적인 로마자 표기안들은 양병선(2000)이 지적하듯이, 한국어가 각양각색의 로마자로 표기되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현행 인명 표기법(제3장 4항 및 7항)도 성을 앞에 놓고 그 뒤에 두 이름자를 붙여쓰는 원칙적인 표기(예: Min Yongha) 외에 두 이름자 사이에 붙임표를 넣는 표기(예: Min Yong-ha) 및 그동안 써 온 관례적인 인명 표기까지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 대중이 인명 표기의 혼재를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인의 로마자 인명 표기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¹4차례 개정된 공식 표기법은 문교부에서 고시한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1948),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195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1984)과 문화부에서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이다. 1948년 및 1959년 표기법은 김민수(1984)에서, 1984년 표기법은 최태영(1989)에서 그리고 2000년 표기법은 국립국어연구원(2000)에서 찾아볼 수 있다.

²이상억(1994:136) 참조.

는 것은 이미 조사된 바 있다(서정수 1991; 정경일 1997; 김혜숙 1998, 2001; 김세중 2001). 그렇지만 이들 연구는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로마자 표기로 자신의 인명을 적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한 사람이 언제나 하나의 로마자 표기로 자신의 인명을 적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고는 한국인이 자신의 로마자 인명을 과연 하나의 표기로 일관되게 적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표기로 적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영어전공자들의 로마자 표기의 일관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고의 첫 번째 목적은 영어전공자의 로마자 인명 표기의 현황을 살펴보고, 일반인의 표기 현황과 비교해보는 것이다. 즉, 《영어영문학》(1991-2000)에 논문을 게재한 전국의 영어영문학 전공자 313명을 대상으로 로마자 인명 표기의 현황을 살펴본 후, 이들의 표기가 일반인의 표기와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성격이 다른 두 집단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로마자 인명 표기에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의 성과 이름의 순서 및 이름의 표기 양상은 *Korea Annual*(1996)에 실린 818명의 인명 표기(김혜숙 1998)를 참조하였고, 성의 철자는 여권 소지자 3,300명의 인명 표기(김세중 2001)를 참조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영어영문학》(1991-2000)에 논문을 두 번 이상 게재한 사람들 96명을 대상으로 로마자 인명 표기의 일관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명을 두 번 이상 표기할 때, 하나의 로마자 표기로 일관성 있게 적고 있는지, 만약 일관성 없이 서로 다른 표기로 적고 있다면, 성과 이름의 순서·이름의 표기 양상·철자 중에서 어느 것을 어떻게 바꾸어 쓰고 있는지 등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 인명의 로마자 표기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자료

한국인이 사용하는 로마자 표기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한국영어영문학회의 학술지인 《영어영문학》(1991-2000)에 원고를 게재한 사람들의 로마자 인명 표기를 조사하였다. 《영어영문학》은 계간지로서 봄·여름·가을호는 한국어 논문을 실고, 겨

올호는 영어 논문을 신는다. 본 연구는 한국어 논문 뒤에 부기된 영문 요약 및 영어 논문의 본문에 적힌 게재자들의 로마자 인명 표기를 연구 자료로 삼았다. 그 이유는 이 곳에 적힌 로마자 인명 표기가 게재자 스스로가 작성한 실제 사용되는 표기이기 때문이다³. 《영어영문학》은 10년 동안 40권의 학술지와 광복 50주년 기념 특집호(1996년 5월) 1권 등 모두 41권을 발간하였다. 특집호에는 영문 요약이 없어 제외시키고, 본고는 10년 동안 발간된 봄·여름·가을·겨울호 40권의 학술지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발간된 40권의 《영어영문학》에는 한국 인명을 가진 313명이 쓴 461편(영문 요약 없는 2개의 논문은 제외)의 국·영문 논문이 실려 있다. 게재자 수와 논문 편수가 다른 이유는 이 기간 중에 한 사람이 1편에서부터 5편까지 게재한 경우와 논문을 공저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0년간 논문을 1편 게재한 사람의 수는 217명이고, 논문을 2편 이상 게재한 사람의 수는 96명이다. 96명 중 10년에 걸쳐 논문을 두 번 게재한 사람은 57명, 세 번 게재한 사람은 24명, 네 번 게재한 사람은 12명, 그리고 다섯 번 게재한 사람은 3명이다.

《영어영문학》을 연구 자료로 택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그 첫 번째는 《영어영문학》을 발간하는 한국영어영문학회의 회원 자격이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 및 그에 관련된 학문을 강의하는 이”이므로 영어 및 영미 문화에 익숙한 이들의 인명 표기와 기존 연구들이 조사한 일반인들의 인명 표기를 비교하여 한국인 인명 표기의 통일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두 번째는 한국어 논문 뒤에 부기하도록 되어있는 영문 요약 및 영어 논문의 본문에 실린 인명 표기가 게재자가 실제 사용하는 로마자 표기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96명의 다논문 게재자들이 자신들이 쓴 두 편 이상의 논문에 동일한 로마자 인명을 쓰고 있는지의 일관성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³목차와 본문의 인명 표기가 서로 다르게 적힌 영문판 겨울호의 경우, 본고는 일괄적으로 성을 이름 뒤에 적은 목차의 표기는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고 게재자 스스로가 적은 본문의 인명 표기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2. 로마자 인명 표기의 통일성

2장은 《영어영문학》에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논문을 게재한 영어영문학 전공자들이 로마자 인명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일반인들의 로마자 인명 표기와 비교·분석한 것이다. 즉 두 집단을 대상으로, 성과 이름 중 어떤 것을 먼저 쓰고 있는지, 두 이름자를 표기하기 위해 어떤 표기 양상을 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철자를 사용하여 성을 표기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두 집단에서 사용하는 로마자 인명 표기에 통일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은 영어전공자들이 (1) 성과 이름의 순서, (2) 이름의 표기 양상 및 (3) 성의 철자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일반인들의 로마자 인명 표기와 비교한 것이다.

2.1. 성과 이름의 순서

영어영문 전공자들이 자신의 인명을 로마자로 표기시 성을 앞에 놓는 한국식으로 쓰는지 아니면 성을 뒤에 놓는 영미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두 이름자를 가지면서 인명을 한 가지로 표기한 263명⁴⁾ 중에서 영미식으로 쓴 사람은 217명(82.5%)으로 한국식으로 쓴 46명(17.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표 1> 참조). 이 결과는 성을 앞에 표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 대중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Korea Annual*(1996)에 열거된 818명 중에서 96.1%가 성을 이름 앞에 쓰고 있었으며(<표 1> 참조),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는 94.6%(정경일 1997), 그리고 한 충청권 대학교의 인문학부 교수들은 90.9%(김혜숙 2001)가 한국식으로 성을 먼저 적고 있었다. 아무래도 표기자의 전공이 인명 표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영어 및 영미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영어전공자들에게 성을 뒤에 놓는 영

⁴⁾10년 동안 논문을 두 번 이상 게재한 96명 가운데 로마자 인명을 일관성 없이 표기한 42명과 외자 이름을 가진 8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전체 313명 중 263명만을 연구 자료로 삼았다. 즉 두 음절의 이름을 가지면서 자신의 인명을 한 가지 표기로 적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본고는 한국인들이 두 이름자를 표기하기 위해 어떤 표기 양상을 택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외자 이름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미식 순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영 미 식						한 국 식					
		영어전공자		일반인†				영어전공자		일반인†	
유형	표기 양상	표기자 수	백분율	표기자 수	백분율	유형	표기 양상	표기자 수	백분율	표기자 수	백분율
1	Gn-Gn Sn	94	35.7	14	1.7	8	Sn, Gn Gn	12	4.6	16	2.0
2	Gngn Sn	64	24.3	1	0.1	9	Sn, Gn-Gn	7	2.7	9	1.1
3	Gn-gn Sn	30	11.4	0	0	10	Sn, Gn-gn	7	2.7	1	0.1
4	Gn Gn Sn	26	9.9	15	1.8	11	Sn Gn-Gn	6	2.3	73	8.9
5	GnGn Sn	1	0.4	0	0	12	Sn Gn-gn	6	2.3	16	2.0
6	Gn-Gn, Sn	1	0.4	0	0	13	Sn, Gngn	4	1.5	0	0
7	Gngn, Sn	1	0.4	0	0	14	Sn Gn Gn	2	0.7	654	80.0
						15	Sn Gngn	2	0.7	15	1.8
기 타	Gn _i Gn _i Sn	0	0	2	0.2	기 타	Sn Gn gn	0	0	1	0.1
							Sn Gn _i Gn _i	0	0	1	0.1
소 계		217	82.5	32	3.8	소 계		46	17.5	786	96.1
총 계 (영어전공자)		263명		100%							
총 계 (일반인)		818명		100%							

<표 1> 영어전공자들과 일반인들의 로마자 인명 표기

Sn(Surname): 첫 로마자를 대문자로 표기한 성 (예: Kim)

Gn(Given name): 첫 로마자를 대문자로 표기한 이름자 (예: Young)

gn(given name): 첫 로마자를 소문자로 표기한 이름자 (예: hee)

Gngn: 첫 번째 이름자의 첫 로마자는 대문자로, 두 번째 이름자의 첫 로마자는 소문자로 써 붙임표 없이 이어 쓴 이름 (예: Duckhee)

† 일반인의 자료는 *Korea Annual*(1996)에 실린 818명의 인명 표기(김혜숙 1998)를 참조한 것이다.

대다수 일반인들이 따르는 표기 순서는 현행법의 성-이름 순서에 부합되지만, 영어전공자들이 표기하는 순서는 현행법과 부합되지 않는다.

성을 앞에 쓴 영어전공자의 경우, 성 바로 뒤에 쉼표⁵⁾를 찍은 사

⁵⁾이명의 한 심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성을 앞에 쓰고 성 다음에 쉼표를 찍은 유형 8, 9, 10, 13(<표 1>)을 영미식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동

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략 2배 정도 많았다(<표 1>). 성을 앞에 적은 46명의 영어전공자 중에서, 성 바로 뒤에 쉽표를 찍은 사람은 30명(유형 8, 9, 10, 13)으로 65.2%에 달하며, 쉽표를 찍지 않은 사람은 16명(유형 11, 12, 14, 15)으로 34.8%이다. 이는 영어전공자들이 인명을 성-이름 순으로 적고, 성 다음에 쉽표를 찍는 참고문헌의 표기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성을 이름 앞에 적은 한국식 게재자 786명 중에서 단지 26명(3.3%)만이 성 다음에 쉽표를 찍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2.2. 이름의 표기 양상

영어영문학 전공자들은 이름을 대체적으로 네 가지 양상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Gn-Gn(예: Won-Chung), Gngn(예: Duckhee), Gn-gn(예: Young-hee) 및 Gn Gn(예: Myung Joo)이다 (<표 2> 참조). 가장 많이 사용한 표기 양상은 두 이름자를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 둘 사이에 붙임표를 넣는 Gn-Gn(42.6%)이며,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표기 양상은 두 이름자를 붙여 쓴 Gngn(25.1%)으로, 영어전공자의 다수가 이 두 표기를 선호하고 있다. 세 번째는 두 이름자 사이에 붙임표를 넣고 붙임표 앞의 첫 이름자는 대문자로 그리고 붙임표 다음의 두 번째 이름자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Gn-gn(16.7%), 네 번째는 한글을 쓸 때처럼 두 이름자를 따로 띄어 쓰는 Gn Gn(15.2%)이다. 그리고 영어의 MacIntosh처럼 대문자로 시작한 두 이름자를 붙임표 없이, 이어 적는 GnGn은 단 한 명(0.4%)뿐이었다.

의한다. 그렇게 보면 영어전공자 중에서 영미식 순서를 따르는 수는 247(93.9%)명으로 늘어나고, 일반인이 한국식을 따르는 수는 760명(92.9%)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참고문헌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 영미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성을 뒤에 쓰고 있으므로, 성을 앞에 두고 쉽표를 찍는 유형을 성-이름 순의 한국식과 쉽표를 찍는 영미식의 절충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어전공자		일반인		해당 표기안
			표기자 수	백분율	표기자 수	백분율	
유형	표기 양상	실제표기 예					
1	Gn-Gn	Won-Chung	112	42.6	96	11.7	유만근(1980), 김혜숙(1998)
2	Gngn	Duckhee	66	25.1	16	2.0	M-R(1939), 한글학회(1984) 김복문(1996), 현행법(2000)
3	Gn-gn	Young-hee	44	16.7	17	2.1	문교부(1984), 현행법(2000) 에서 허용
4	Gn Gn	Myung Joo	40	15.2	685	83.7	김세환(1998)
5	GnGn	YoungEun	1	0.4	0	0	정태충(1998), 리의재(1998)†
기타	Gn, Gn, Sn 및 Sn Gn gn		0	0	4	0.5	
총 계			263명	100%	818명	100%	

<표 2> 영어전공자들과 일반인들의 이름의 표기 양상

† 리의재(1998)에서는 한국 인명을 이탤릭체(예: *YoungEun*) 등 다른 글씨체로 표기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 2>에서 보여주듯이, 영어전공자들은 두 이름자를 한 묶음으로 쓰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름을 묶어 쓰는 경우(Gn-Gn, Gngn, Gn-gn, GnGn)가 84.8%가 되는데 비해, 두 이름자를 따로 떼어 쓰는 경우(Gn Gn)는 15.2%에 불과하다. 이는 영어전공자들이 음절을 띄어쓰지 않고 한 묶음으로 이어 적는 서양 이름에 익숙해 있어, 로마자로 인명을 표기 할 때 이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름을 한 묶음으로 붙여 쓰는 표기 중에서는 두 이름자 사이에 붙임표를 넣는 표기(Gn-Gn, Gn-gn)가 붙임표 없이 두 이름자를 이어서 쓰는 표기(Gngn, GnGn)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즉 붙임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70%, 붙임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30%이다. 붙임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름자를 소문자보다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표기(Gn-Gn)를 선호하고, 붙임표를 사용하지 않고 두 이름자를 이어 쓸 때는 거의 대부분이 앞의 이름자는 대문자로 그리고 뒤의 이름자는 소문자로 시작(Gngn)한다.

현행법(제3장 4항)은 붙임표 없이 두 이름자를 이어 쓰는 Gngn 표기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전공자와 일반인 모두 Gngn을 최우선으로 선호하지는 않는다. 영어전공자가 Gngn으로

이름을 표기하는 경우는 25.1%였고, 일반인들은 극소수인 1.9%만이 이 표기 양상을 사용하고 있었다. 성과 이름을 함께 표기할 때, 현행법이 규정한 Sn Gngn(<표 1> 유형 15)을 지키는 영어전공자는 0.7%, 일반인은 1.8%로 두 집단 모두 극소수에 불과하다. 두 이름자를 하나의 단위로 이어 쓰는 Gngn은 두 음절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음운변화를 피할 수 없는 경우(예: Mina ‘민아’ 또는 ‘미나’)가 생기게 되므로, 두 이름자를 붙임표로 넣어 쓰는 Gn-Gn이 보다 더 적합하다고 김혜숙(1998)에서 제시된 바 있다. 현행 Gngn 표기는 한국인에 의해 선호되지도 않고, 두 이름자 사이에서 음운변화가 나타날 혼돈의 소지가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2.3. 성의 철자 표기

10년 동안 《영어영문학》에 논문을 게재한 313명의 성씨 종류는 45개이다. 45개의 성씨 중에서 한 사람의 게재자만 있는 15개의 성씨를 제외하면, 두 사람 이상의 게재자가 있는 성씨는 모두 30개(총 298명)이다. 30개의 성씨 중에서, 게재자 모두가 동일한 철자로 표기하고 있는 성은 그 중 절반인 15개(총 140명)—‘김’ Kim, ‘박’ Park, ‘송’ Song, ‘한’ Han, ‘고’ Koh, ‘문’ Moon, ‘심’ Shim, ‘양’ Yang, ‘오’ Oh, ‘권’ Kwon, ‘손’ Sohn, ‘여’ Yeo, ‘홍’ Hong, ‘노’ Roh, ‘민’ Min—이다.

번호	성	영어전공자			일반인†			번호	성	영어전공자			일반인†		
		인원	철자	철자	철자	철자	철자			인원	철자	철자	철자		
1	김	68	Kim	Kim	Gim	9	오	4	Oh	Oh	O				
2	박	25	Park	Park	Bak	10	권	3	Kwon	Kwon	Gweon				
3	송	6	Song	Song	Song	11	손	3	Sohn	Son	Son				
4	한	5	Han	Han	Han	12	여	3	Yeo	Yeo	Yeo				
5	고	4	Koh	Ko	Go	13	홍	3	Hong	Hong	Hong				
6	문	4	Moon	Moon	Mun	14	노	2	Roh	Noh	No				
7	심	4	Shim	Shim	Sim	15	민	2	Min	Min	Min				
8	양	4	Yang	Yang	Yang										
소 계		120명						소 계		20명					
총 계		140명													

<표 3> 영어전공자 100% 모두 동일하게 표기한 성의 표기

- † 일반인은 여권 소지자를 분석한 김세중(2001)을 참조하였다. <표 3>의 일반인 표기는 여권 소지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표기만을 적은 것이다.
- ‡ <표 3>의 현행안은 현행안 표기법(2000)에 따라 표기했을 경우를 적은 것이다. 현행안에서는 아직 성의 표기를 정하지 않았으며, 추후에 따로 정한다는 항목을 제3장 4항 (2)에 두고 있다.

김세중(2001)이 일반인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로마자 인명 표기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Kim(99.8%),⁶⁾ Park(97.3%), Song(99.5%), Han(98.7%), Moon(84.0%), Shim(60.6%), Yang(99.1%), Oh(96.3%), Kwon(85.4%), Yeo(82.7%), Hong(99.6%), Min(99.3%)의 12개 표기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영어전공자와 일반인 모두가 15개의 성 가운데 80%나 되는 12개의 성을 같은 표기로 적는다는 것은 두 집단의 표기 사이에 통일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12개⁷⁾의 성 가운데, Song, Han, Yang, Yeo, Hong, Min 등 6개 성을 가진 영어전공자 23명(16.4%)만이 현행법 표기에 맞게 적고 있다(<표 3> 참조). 이는 대다수의 영어전공자와 일반인 모두가 집단에 상관없이 표기법과 무관한, 관례적으로 굳어진 동일한 철자를 성 표기에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사람 이상의 게재자가 있는 성씨 30개 중에서, 서로 다른 철자로 표기된 성은 15개(총 158명)이다. 이들 15개의 성 가운데, 70%가 넘는 영어전공자의 다수가 동일한 철자로 표기하고 있는 성은 9개였다: ‘이’ Lee(93.8%), ‘강’ Kang(91.7%), ‘조’ Cho(88.9%), ‘신’ Shin(87.5%), ‘최’ Choi(87.5%), ‘윤’ Yoon(86.7%), ‘안’ Ahn(83.3%), ‘장’ Chang(80%), ‘허’ Huh(75.0%)(<표 4> 참조). 김세중(2001)에서도 Lee(98.4%), Kang(98.1%), Cho(87.9%), Shin(84.9%), Choi(96.6%), Yoon(63.3%)은 굳어진 표기로 조사되었다(<표 4>의 굵은 활자 참조).

이들 9개 표기 역시 집단에 상관없이 관례로 굳어진 표기로 성을 표기하고 있었으며, 현행 표기법과 일치하는 표기는 하나도 없었다.

⁶⁾성씨마다 조사한 표본의 수가 다르다. ‘김,’ ‘박,’ ‘송,’ ‘홍’은 3,300명이고, ‘한,’ ‘문,’ ‘심,’ ‘양,’ ‘오’는 3,299명, ‘권’은 3,296명, ‘여’는 2,057명이다.

⁷⁾일반인이 영어전공자와 다르게 표기하는 성씨는 ‘고,’ ‘손,’ ‘노’ 등 세 개의 성뿐이다. 그러나 ‘고,’ ‘손,’ ‘노’의 성을 가진 영어전공자들의 숫자가 각각 4명, 3명, 2명으로 너무 적어(<표 3> 참조), 이들이 쓰는 표기를 영어전공자들의 표기로 일반화시켜 일반인들의 표기와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번호	성	영어전공자	일반인	현행안*
1	이	48명 Lee(93.8%), Rhee(4.2%), Yi(2.0%)	Lee(98.4%), Yi(0.9%)	I
2	강	12명 Kang(91.7%), Kahng(8.3%)	Kang(98.1%), Gang(1.2%)	Gang
3	조	9명 Cho(88.9%), Joh(11.1%)	Cho(87.9%), Jo(10.7%)	Jo
4	신	8명 Shin(87.5%), Shynne(12.5%)	Shin(84.9%), Sin(14.2%)	Sin
5	최	16명 Choi(87.5%), Choe(12.5%)	Choi(96.6%)	Choe
6	윤	15명 Yoon(86.7%), Yun(13.3%)	Yoon(63.3%), Yun(25.5%)	Yun
7	안	6명 Ahn(83.3%), An(16.7%)	An(58.4%), Ahn(39.6%)	An
8	장	5명 Chang(80%), Jang(20%)	Jang(70.4%), Chang(28.7%)	Jang
9	허	4명 Huh(75.0%), Hur(25.0%)	Heo(35.8%), Hur(29.7%)	Heo
총	계	123명		

<표 4> 70% 이상의 다수가 동일하게 표기한 성의 표기

일반인의 경우, 각 성에 대해 100%의 백분율이 나오지 않는 것은 김세중(2001)에서 소수가 적은 표기는 기타로 분류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형	다표기 순서	표기자	표기자 수	백분율
1	성, 이름 ↔ 이름 성	N ₁ , N ₂ , N ₄ , N ₈ , N ₁₄ , N ₁₉ N ₂₄ , N ₂₉ , N ₃₄ , N ₃₆ , N ₄₀ , N ₄₁	12	66.7
2	성 이름 ↔ 이름 성	N ₃ , N ₉	2	11.1
3	성, 이름/성 이름 ↔ 이름 성	N ₅ , N ₂₅	2	11.1
4	성, 이름 ↔ 이름, 성	N ₂₆	1	5.6
5	성, 이름 ↔ 이름, 성/이름 성	N ₂₀	1	5.6
	계		18명	100.1%

<표 5> 일관성 없게 쓴 성과 이름의 순서

↔: 표기자들이 왼쪽 표기에서 오른쪽 표기로 바꾸어 쓴 것이 아니라, 두 표기를 혼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 표시를 사용하였다.
N 밑의 작은 번호: 로마자 인명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표기로 적고 있는 42명 각각을 나타내는 고유 번호이다.

인구수 100만이 넘는 7대 성 ‘김,’ ‘이,’ ‘박,’ ‘정,’ ‘최,’ ‘조,’ ‘강’ (김혜숙 2000)⁸⁾ 중에서 ‘정’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영어전공자와 일

⁸⁾ 『대한민국성씨변천사』(1992)에 따르면 백만이 넘는 인구 수를 가진 성

반인이 표기법과 관계없이 관례적으로 굳은 동일한 철자를 성 표기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새로운 성의 표기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바뀌 쓰지 않으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3. 로마자 인명 표기의 일관성

10년 동안 《영어영문학》에 논문을 게재한 313명 중에서 두 번 이상 논문을 게재한 사람은 96명이다. 이들 96명 중, 42명(43.75%)이나 되는 많은 수의 게재자들이 자신의 인명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로마자 표기로 적고 있었다.

3장은 자신의 로마자 인명을 서로 다른 표기로 일관성 없이 적고 있는 4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성과 이름의 순서·이름의 표기 양상·철자의 세 항목 중에서 한 항목만을 바꾸어 표기하고 있었다. 즉, 한 항목만 바꾸어 적은 게재자는 대다수인 30명(71.4%)이었으며, 두 항목을 바꾼 게재자는 12명(28.6%)이었다. 그러나 세 항목 모두를 바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과 이름 순서, 이름의 표기 양상 및 철자의 세 항목 중에서, 게재자들이 가장 많이 바꾼 항목은 이름의 표기 양상으로 42명 중 33명(78.6%)이나 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바꾼 항목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42명 중 18명(42.9%)이 한국식으로 성을 앞에 놓기도 하고 서양식으로 성을 뒤에 놓기도 하였다. 철자를 다르게 쓴 경우는 겨우 4명(9.5%)뿐으로, 세 항목 중 가장 적었다.

3.1. 성과 이름 순서의 일관성

성과 이름의 순서를 바꾸어 적은 사람은 18명으로 10년 동안 논문을 두 번 이상 게재한 영어전공자 96명 가운데 18.8%에 해당된

은 198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김,’ ‘이,’ ‘박,’ ‘최,’ ‘정’의 5대 성이다. 이 숫자는 똑같은 한글로 표기되어도, 본관이나 한자가 다르면 각기 다른 성으로 분류된 결과이다. 로마자 표기를 위해, 한글만을 기준으로 재분류(예: 곡부 귀과 김포 공을 같은 ‘공’으로 분류)하면, 백만이 넘는 성은 ‘김,’ ‘이,’ ‘박,’ ‘정,’ ‘최,’ ‘조,’ ‘강’의 7대 성이 된다 (김혜숙 2000).

⁹영어전공자들은 ‘정’을 Chung(57.1%), Chong(14.3%), Jung(14.3%), Cheong(7.1%), Jeong(7.1%)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었다. 일반인들은 영어전공자들과 달리, Jung(48.8%)과 Jeong(21.8%)을 가장 많이 쓰고 있었다.

다. 인명을 두 개 이상의 표기로 적은 42명 중에서는 42.9%에 달해, 한 개인의 비일관적인 인명 표기가, 많은 경우, 성과 이름의 뒤바뀐 순서에서 비롯되고 있다. 로마자 인명 표기의 조사 범위를 국내에서의 사용뿐 아니라 국외에서의 사용으로까지 넓히면, 성과 이름의 순서를 바꿔 쓰는 비율은 훨씬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는 이름-성의 영미식 인명 표기 순서가 널리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에서 서구인들의 인명을 표기할 때 조지 부시(George Bush)처럼 영미식 순서를 따른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성-이름의 한국식 순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국내에서는 한국식 순서를 쓰는 사람이라도 미국·영국 등 서구에 가서는 영미식 순서에 따라 성을 뒤에 놓는 경우가 많아지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성을 앞에 쓰는 경우, 영어전공자의 대다수가 성 바로 뒤에 쉽표를 찍고 있었다(<표 5> 참조). 성 다음에 쉽표를 찍고 있지 않는 사람은 18명 중 유형 2의 두 사람(11.1%) 뿐이다. 유형 1, 4, 5의 14명(77.9%)은 성 다음에 항상 쉽표를 찍고 있다. 유형 3의 두 사람은 성 다음에 쉽표를 찍기도 하고, 찍지 않기도 한다. 이 두 사람은 10년 동안 《영어영문학》에 세 편의 논문을 게재했는데, 세 논문마다 각기 다른 표기를 적고 있었다. 한 논문에서는 성을 뒤에 썼고, 또 한 논문에서는 성을 앞에 적은 후 성 다음에 쉽표를 찍었으나, 또 다른 논문에서는 성을 앞에 적은 후 성 다음에 쉽표를 찍지 않았다.

유형 4의 N₂₆은 성이 앞에 오든 아니면 이름이 앞에 오든 상관없이, 앞에 오는 것 다음에 쉽표를 찍었다. 유형 5의 N₂₀은 성이 앞에 오면 쉽표를 찍고, 이름이 앞에 오면 쉽표를 찍기도 하고 찍지 않기도 했다. 이렇게 다수가 성 다음에 쉽표를 찍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참고문헌의 서양 인명처럼 예외적으로 성을 앞에 놓는 경우, 성 다음에 쉽표를 찍는 관행을 영어전공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2. 이름의 표기 양상의 일관성

이름의 표기 양상은 두 이름자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 지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두 이름자를 붙여 썼는지(Gn-Gn, Gn-gn, Gngn, GnGn) 또는 띄어 썼는지(Gn Gn), 붙여 쓸 경우 두 이름자 사이에 붙임표를 삽입하는지(Gn-Gn, Gn-gn) 아니면 붙임표

없이 이어 쓰는지(Gngn, GnGn), 붙임표 다음의 이름자를 대문자로 시작하는지(Gn-Gn) 아니면 소문자로 시작하는지(Gn-gn), 이름자를 약자로 쓰는지(Gn_i Gn_i), 성을 모두 대문자로 표기하는지(SN) 등이 포함된다.

이름을 서로 다른 양상으로 표기한 사람은 33명으로, 10년 동안 두 개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96명 중에서는 34.4%, 로마자 인명을 다르게 표기한 42명 중에서는 73.6%나 된다. 이는 일관성 없이 인명을 표기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름의 서로 다른 표기 양상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름을 서로 다르게 쓴 33명 중에서 31명(유형 1~8)이 두 가지 양상으로 바꾸어 적고 있었다. 단지 2명(유형 9, 10)만이 세 가지의 다른 양상으로 적고 있었다 (<표 6> 참조).

표기 양상을 다르게 쓰는 경우의 대부분은 두 이름자 사이에 붙임표를 넣느냐 또는 넣지 않느냐(유형 1, 3, 4, 6, 9, 10)와 두 번째 이름자를 대문자로 시작하느냐 또는 소문자로 시작하느냐(유형 2, 3, 5, 6, 9, 10)로 집약된다. 두 이름자 사이에 붙임표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사람이 20명(60.6%)이었고, 두 번째 이름자를 대문자로 시작하기도 하였다가 소문자로 시작하기도 한 사람도 역시 20명(60.6%)이었다. 두 사람 N₃₃(유형 7)과 N₃₉(유형 8)는 이름 다음에 쉼표를 찍기도 하고, 찍지 않기도 하였다. 또 다른 두 사람 N₂₂(유형 9)와 N₂₅(유형 10)는 세 개의 다른 표기로 인명을 적고 있었다. N₂₂는 《영어영문학》에 10년 동안 게재한 다섯 편의 논문에 세 개의 다른 표기 양상으로 적고 있었다. N₂₅는 세 개의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각 세 논문에 이름을 각기 다른 표기 양상으로 적고 있었다.

유형	다표기 양상	표기자	표기자수	백분율
1	Gn-Gn ↔ Gn Gn	N ₆ , N ₁₀ , N ₁₉ , N ₂₆ , N ₃₅ , N ₃₆ N ₃₈ , N ₄₀ , N ₄₁	9	27.3
2	Gn-Gn ↔ Gn-gn	N ₁₄ , N ₁₅ , N ₁₆ , N ₁₈ , N ₂₃ , N ₂₈ N ₂₉ , N ₃₂ , N ₃₇	9	27.3
3	Gn-Gn ↔ Gngn	N ₇ , N ₁₃ , N ₁₁ , N ₂₁ , N ₃₀ , N ₄₂	6	18.2
4	Gngn ↔ Gn-gn	N ₂₄ , N ₂₇	2	6.1
5	Gngn ↔ Gn Gn	N ₅ , N ₁₇	2	6.1
6	Gn-gn ↔ Gn Gn	N ₃₁	1	3.0
7	Gn-Gn ↔ Gn-Gn,	N ₃₃	1	3.0
8	Gngn ↔ Gngn,	N ₃₉	1	3.0
9	Gn-Gn ↔ Gngn ↔ Gn Gn	N ₂₂	1	3.0
10	Gn-Gn ↔ Gngn ↔ Gn-gn	N ₂₅	1	3.0
	계		33명	100%

<표 6> 일관성 없는 이름의 표기 양상

↔: 표기자들이 왼쪽 표기에서 오른쪽 표기로 바꾸어 쓴 것이 아니라, 두 표기를 혼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 표시를 사용하였다.

논문을 두 번 이상 게재한 영어전공자들의 대다수가 이름을 서로 다른 양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다양한 표기 양상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두 이름자가 Gn-Gn(예: Hyeon-Cheol)으로 쓰였든 또는 Gn-gn(예: Hyeon-cheol), Gngn(예: Hyeoncheol), Gn Gn(예: Hyeon Cheol), GnGn(예: HyeonCheol)으로 쓰였든 한국인들은 이들을 동일한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어차피 우리의 인명 체계와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의 인명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서로 다른 표기 양상으로 표기되는 것에 대해 너그럽다고 볼 수 있다.

3.3. 철자 표기의 일관성

앞에서 살펴본 성·이름의 순서나 이름의 표기의 양상과는 달리, 철자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표기되고 있었다. 단지 4명(N₁₂, N₁₃, N₃₈, N₃₉)만이 자신의 인명을 다른 철자로 적고 있을 뿐이다. 이는 두 편 이상의 논문 게재자 96명 중에서 4.2%밖에 안되는 숫자이며,

인명을 두 개 이상의 다른 표기로 적고 있는 42명 중에서는 9.5%에 해당된다.

네 사람이 다른 철자로 적고 있는 글자는 ‘근,’ ‘정,’ ‘재,’ ‘헌,’ ‘혜’ 등 5개로, 역시 로마자 표기의 쟁점이 되고 있는 ‘_,’ ‘j’와 ‘z’이 포함되었다. 이들이 바꾼 철자는 모두 이름자이며, 성의 철자를 바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번호	표기자	논문 1	논문 2	논문 3	다철자
1	N ₁₂	Gn Gn Sn	Gn Gn Sn		Geun→Gun
2	N ₁₃	Gn-Gn Sn	Gngn Sn		Jung→Chung
3	N ₃₈	Gn ₁ -Gn ₂ Sn	Gn ₁ Gn ₂ Sn		Gn ₁ : Jae→Jai Gn ₂ : Hun→Hern
4	N ₃₉	Gngn Sn	Gngn Sn	Gn-Gn, Sn	Hae→Hea→Hea
계	4명				

<표 7> 일관성 없게 쓴 철자

굵은 활자는 비일관적으로 표기된 철자

인명의 다양한 철자는 4 차례(1948, 1959, 1984, 2000)에 걸친 공식 표기법의 개정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의 N₁₂는 두 번째 이름자 ‘근’의 ‘_’를 eu와 u로 바꾸어 적고 있었다. 첫 번째 논문에 적은 eu는 1959년 및 현행 표기법에 맞는 철자이고, 두 번째 논문에 적은 u는 1948년 및 1984년 표기법에 맞는 철자다(‘_’는 원래 ũ로 표기되지만, 타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달표(˘)를 생략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 N₁₃은 첫 번째 이름자의 ‘z’을 j와 ch로 쓰고 있는데, j는 1959년 및 현행 표기법에 맞고, ch는 1948년 및 1984년 표기법에 맞는다. N₃₈은 ‘j’를 ae와 ai로 적고 있다. 1959년, 1984년, 현행 표기법에 따르면 ‘j’가 ae로 표기되지만, 1948년 표기법에 따르면 ai이다. 이는 공식 표기법의 교체가 다양한 철자를 양산하는데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N₃₈은 또한 ‘j’를 u와 er로 바꾸어 적고 있다. u와 er 표기는 네 개의 어느 공식 표기법에도 맞지 않는다. 이는 영어 단어 bun, fun, gun, pun, run, sun 등의 u가 ‘j’와 유사한 [ʌ]로 발음이 되고, fern, germ, jerk, mermaid, term, versus 등의 er이 [ə:r]로 발음되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N₃₉는 ‘키’를 처음 논문에서는 ae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논문에서는 ea로 바꾸어 적고 있다.

4. 맺는 글

이상으로 본고는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로마자 인명 표기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성과 이름의 순서, 이름의 표기 양상, 그리고 철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영어전공자의 인명 표기를 일반인의 표기와 비교해 볼 때, 성과 이름의 순서와 이름의 표기 양상은 두 집단이 서로 달랐으나, 철자는 두 집단 모두 관계에 따른 비교적 동일한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영어전공자들은 이름-성의 순서와 두 이름자를 붙여쓰는 Gn-Gn 및 Gngn 표기 양상을 선호하였다. 반면, 일반인들은 성-이름의 순서와 두 이름자를 따로 떼어 쓰는 Gn Gn 표기 양상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영어전공자들은 영미식의 이름-성 순서와 이름을 한 단위로 쓰는 영미식의 표기 양상을, 그리고 일반인들은 한국식의 성-이름 순서와 이름을 음절별로 띄어 쓰는 한국식 표기 양상을 인명 표기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의 철자를 살펴보면, 영어전공자든 일반인이든 전공에 상관없이 Kim, Park, Lee, Kang, Cho, Shin, Choi, Yoon 등 다수 인구를 가진 성씨들을 관계로 굳은 표기로 표기하고 있었다.

둘째, 영어전공자들이 자신들의 로마자 인명 표기를 한가지 표기로 적고 있는지 또는 여러 가지 표기로 적고 있는지의 일관성을 조사한 결과, 10년 동안 논문을 두 번 이상 게재한 96명 가운데서 거의 반수에 가까운 42명이나 인명 표기를 바꾸어 적고 있다. 다시 말해, 로마자 인명 표기를 일관성 없이 바꾸어 적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표기의 일관성 정도를 항목별로 조사해 보면, 철자는 극소수만 바꾸어 적고 있었다. 이름의 표기 양상을 바꾸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성과 이름의 순서를 바꾸어 적는 사람은 두 번째로 많았다. 즉, 철자가 가장 일관성 있게 표기되고 있었다. 이는 이름의 표기 양상과 성-이름의 순서는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반면, 철자는 한 번 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현황에서도 성

과 이름의 순서와 이름의 표기 양상은 집단에 따라 달랐으나, 철자는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의 표기 양상을 서로 다르게 쓰거나 성과 이름의 순서를 바꾸어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철자는 바꿔 쓰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7월에 제정된 새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표기 순서와 표기 양상은 규정하고 있지만, 성의 철자는 추후에 따로 정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다. 새 표기법의 철자에 따라 표기할 경우, 한국인들이 실제 표기하는 철자와 그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에 상관없이 관례에 따른 철자로 표기하고 있고 또 한번 정한 철자는 잘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경향으로 미루어 보아 새롭게 성의 철자가 제정되어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에 따라 바꾸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이상억(2001)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비교적 외부 의견과 영향을 덜 받는 중국에서조차 Peking이 Beijing로 바뀌는 데 사반세기가 걸린 사실에 주목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단시일에 성과를 거두려는 생각보다는 한동안은 복수 표기를 허용하다가 점진적인 통일을 꾀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여권에 인명을 표기할 때 표기법에 따르도록 한다면, 영어를 처음 배우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표기법에 맞는 인명 표기를 가르친다면 하야 점차 표기법에 대한 인식을 고취, 확산시켜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통일된 로마자 인명 표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본다. 장기적인 철자 표기의 통일에 앞서, 단기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한 개인이 일관성 있게 인명을 표기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2000.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문화관광부.
 김민수. 1984. 『국어정책론』. 서울: 탑출판사.
 김복문. 1996. 『한글의 영어발음기준 로마자 표기법 이론과 실제』. 서울: 무역출판사.
 김세중. 2001. 성씨의 로마자 표기 시안. 『성씨의 로마자 표기 공개 토론회』. 국립국어연구원.
 김세환. 1998. 국어(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대한 소견. 《논문집: 한국

- 어의 로마자 표기법》 1, 91-100.
- 김혜숙. 1998. 한국 인명의 로마자 표기 순서 및 표기 양상. 《사회언어학》 6, 89-111.
- 김혜숙. 2000. 주요 로마자 표기법에 입각한 한국인의 성 표기 문제점: 영어에 근거한 발음 및 의미. 《사회언어학》 8, 415-43.
- 김혜숙. 2001. 제4차 정부 공식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과 한국 인명의 표기. 《건양인문논총》 5, 53-64.
- 리의재. 199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인식 조사와 쉬운 표기법을 위하여. 《논문집: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 83-90.
- 서정수. 1991. 우리말 이름의 로마자 표기에 관하여. 《새국어생활》 1, 101-13.
- 양병선. 2000. 한국 인명 로마자 표기법 연구: 음절 단위 국어의 영자 표기법. 《언어학》 8, 281-302.
- 역사편찬회. 1992. 『대한민국 성씨 변천사』. 서울: 역사편찬회 출판부.
- 유대근. 1980. 외래어의 국자표기와 그 발음. 《어문연구》 8, 308-19.
- 이상억. 1994. 『국어 표기 4법 논의: 맞춤법·표준어·외래어·로마자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상억. 2001. 한국어 로마자 표기의 현 상황과 성씨의 표기. 『성씨의 로마자 표기 공개 토론회』. 국립국어연구원.
- 정경일. 1997. 한국 인명의 로마자 표기 양상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39, 171-86.
- 정태충. 1998.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의 표기 형식에 관한 연구. 《논문집: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 101-8.
- 최태영. 1989. 『한글 맞춤법 강해』. 숭실대학교 출판부.
- 한글학회. 1984. 『한글 맞춤법』. (붙임: 우리말 로마자 적기). 한글학회.

김혜숙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26번지
건양대학교 외국어문학부
우편번호: 320-711
전화번호: 041) 730-5163
E-mail: hskim@konyang.ac.kr

접수일자: 2001. 8. 20.
게재결정: 2001. 9. 11.